

# 왕인박사·도선국사가 걸었던 '월출산 큰골길' 32년 만에 열린다

(명사탐방로)

기찬랜드~대동제~용암사지 5km... 입지적정성 적합 판정  
군·국립공원관리사무소, 13억원 들여 올 착공 내년 완공

왕인박사·도선국사가 걸었던 영암 '월출산 큰골길'이 32년 만에 새로 열린다. 2일 영암군에 따르면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는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명사탐방로 개설 공사가 본격화된다. 영암군은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1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월출산 명사탐방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월출산 명사탐방로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의 입지적정성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현장 평가에서는 전통명 영암군수가 직접 탐방로에서 설명을 맡았다. 올해 착공할 월출산 명사탐방로는 기찬랜드~대

동제~큰골~용암사지에 이르는 5km구간이다. 기찬랜드~대동제 2.4km(5억원)는 영암군이 시행하고,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대동제~큰골~용암사지에 이르는 2.6km(8억원)를 맡는다. 영암군은 자체 시행구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탐방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시행구간에 탐방로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2021년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월출산 명사탐방로는 왕인박사·도선국사·최지몽·김시습·정약용 등 명사들이 월출

산을 오르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월출산 국립공원과 대동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지역민들과 탐방객들이 즐겨 찾았던 등산로 중 하나로 꼽혔다. 기찬랜드와 기찬릿길 접점으로 국보 제144호인 월출산 마애여래좌상과 구정봉의 큰바위얼굴 등을 볼 수 있는 신규 탐방로다. 기찬랜드와 녹암마을을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과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새로운 테마형 탐방로 개설과

주민역량 사업과 연계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랫동안 사 탐들이 지나지 않았던 길,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깨어난다"는 모티브로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통명 영암군수는 "월출산 명사탐방로 개설은 올해 문화관광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명사탐방로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보랏빛 향기 반월·박지도



자은도 백길해수욕장



기점·소악도



증도 쟁뚱어다리

##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반월·박지, 자은, 기점·소악, 증도

행안부 선정 33개 섬 중 신안 4곳 뽑혀  
행정안전부의 '올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 가운데 신안지역 4개 섬이 선정됐다. 2일 신안군에 따르면 행안부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건기 좋은 섬 '반월·박지도' ▲풍경 좋은 섬 '자은도' ▲신비의 섬 '기점·소악도' ▲체험의 섬 '증도' 등 4개 섬이 뽑혔다. 걷기 좋은 섬 '반월·박지도'는 보랏빛 향기가 피어나는 섬이다. 섬에 들어가는 다리도 보라색, 섬

에 핀 꽃도 보라색,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기까지 온통 보라 세상이다. 라벤더 향기 맡으며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를 걷는 색다른 경험을 안겨준다. 풍경 좋은 섬 '자은도'는 치유와 휴양의 섬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국적이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가진 '백길해수욕장'과 여인송으로 유명한 분계해수욕장,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해 연속성과 끝없는 발전의 의미를 담은 무한의 다리 등 특색 있는 '명품 도보여행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신비의 섬 '기점·소악도'는 밀물 때면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이 잠겨 5개의 섬으로 변하며, 12사도 예배당 순례길로 한국의 산티아고라고 불리는 섬이다. 체험의 섬 '증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섬으로, 국내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천일염 생산지인 태평염전과 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청정갯벌을 볼 수 있다. 신안은 선정된 4곳 외에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으로 지정된 비금도, 도초도, 흥도, 은빛모래 백사장 길이 12km의 대평해수욕장, 해당화의 고장 입자도 등 발길이 닿는 곳마다 쉬어 갈 수 있는 곳이 많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천사대교 개통과 내년 개통 예정인 입자대교가 연결되면 관광객들이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된다"며 "관광객 500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광군의회 하반기 의장 최은영 의원 선출

제8대 영광군의회 하반기 의장에 최은영(61·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일 제249회 임시회를 열어 하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 등을 선출했다.



최 의원은 전체의원 8명 중 등원한 5명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 2년 임기의 하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부의장에는 하기 역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박연숙 의원, 산업건설 위원장에 임영민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의회운영 위원장은 추후 임시회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최은영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는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고, '행복한 영광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도 조화롭고 발전적인 관계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신안군의회 하반기 의장 김혁성 의원 선출

신안군의회는 지난 1일 제287회 임시회를 열어 제 8대 하반기 의장에 김혁성(57·사진) 의원을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안원준 의원, 운영위원장에 이종주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최미숙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기만 의원이 선출돼 제 8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초선인 김 의장은 지도·증도·임자지역구로, 전남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김 의장은 "군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안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세얼굴

### "소통·협업... 현장중심 행정 펼칠 것"

박종필 영암 부군수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6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낮게, 더 가까이, 더 많이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박종필(53) 신임 영암부군수는 2일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이 되어줄 4대 핵심 전략산업 위주로 영암군의 중점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이어 "영암군 1000여 공직자에게 소통과 협업,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박 부군수는 보성 출신으로 광주광역시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0년 공직에 입문한 뒤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전남도 서울사무소장·중소벤처기업과장·안전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광 불갑 '모악지구 신규 마을' 68억 투입 첫 삽

50가구 입주... 내년 6월 준공

영광군이 불갑면 모악지구에 도시민 인구유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신규 마을 조성사업의 첫 삽을 떴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착공한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오는 2021년 6월 준공된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0가구 분량을 완료하고 지난해 실시계획 구역에 착수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을 마쳤다.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5만6268㎡ 부지에

도시민 50가구 유치를 위한 주거용지와 마을회관,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국도 22호선(영광-광주)과 국도 23호선이 인접해 인근 광주시와 물리적 거리를 크게 단축시켰다. 인근에 불갑사 관광지와 불갑테마공원 등을 끼고 있어 쾌적하고 매력적인 입지 여건을 자랑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교통 접근성과 경관이 주변과 어우러져, 도시민들에게는 최적의 전원주택지"라며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